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5호 [루계 제25774호] 주체106(2017)년 9월 22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성명을 발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6(2017)년 9월 21일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 명

최근 조선반도정세가 전례없이 격화되고 각일각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로 치닫고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선 미국집권자의 연설내용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였지만 나는 그래도 세계최대의 공식외교무대인것만큼 미국대통령이라는자가 이전처럼 자기 사무실에서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망탕 내뱉던것과는 다소 구별되는 틀에 박힌 준비된 발언이나 할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미국집권자는 정세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나름대로 설득력있는 발언은 고사하고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력대 그 어느 미국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다.

트럼프에게 권고하건대 세상을 향해 말을 할 때에는 해당한 어휘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상대를 보아가며 가려서 하여야 한다.

우리의 정권을 교체하거나 제도를 전복하겠다는 위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한 주권국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반인륜적인 의지를 유엔무대에서 공공연히 떠벌이는 미국대통령의 정신병적인 광태는 정상사람마저 사리분별과 침착성을 잃게 한다.

오늘 나는 미국대통령선거당시 트럼프를 두고 《정치문외한》, 《정치이단아》라고 조롱하던 말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

대통령으로 올라앉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협공갈하며 세상을 여느때없이 소란하게 만들고있는 트럼프는 한 나라의 무력을 틀어쥔 최고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며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숨김없는 의사표명으로 미국의 선택안에 대하여 설명해준 미국집권자의 발언은 나를 놀래우거나 멈춰세운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으며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확증해주었다.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력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단행을 심중히 고려할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소리만 하는 늙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것이 최선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줴친 미국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즐기는 수사학적표현이 아니다.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았을것인가를 심고하고있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것이다.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다.

주체106(2017)년 9월 21일

김 정 은

최후승리의 직선주로로 질풍노도쳐 나아가자

주체적인 금속공업의 위력 힘있게 과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혜산—삼지연철길건설장에 보낼 중량레루생산 결속

온 나라 천만군민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자력갱생대진군의 보폭을 더욱 힘차게 내짚고있는 속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이 높이 울리였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이 9월 중순 혜산—삼지연철길건설장에 보낼 중량레루생산을 전부 결속하는 혁혁한 전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기업소에 파견된 당지도소조성원들은 이곳 당, 행정책임일군들과 합심하여 혜산—삼지연철길건설에 필요한 중량레루생산을 하루빨리 결속하는데 중심을 두고 대중의 정신력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용광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국방과학전사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따라배워 과감한 공격전을 벌림으로써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조업후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며 주체철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원료장입으로부터 쇠물처리에 이르는 전공정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한편 국내산 전극에 의한 초고전력전기로의 용해시간을 단축하여 한차지의 쇠물이라도 더 뽑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중량레루생산의 기본공정을 맡은 조강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일생산계획을 최고 165%로 넘쳐 수행하며 힘차게 내달리였다. 생산의 선행공정을 담당한 가열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설비관리를 정상화하여 레루소재가열에 필요한 온도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압연작업반원들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적들의 제재압살광풍을 짓부셔버릴 일념밑에 중량레루생산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였다. 지단작업반, 제품처리작업반의 로동자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고 모든 설비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중량레루생산성과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중량레루완성직장에서도 레루의 수평교정과 단면가공, 끝부분열처리를 표준조작법대로 하고 초음파탐상기에 의한 검사를 엄격히 진행하며 출하되는 중량레루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원료직장 전투원들은 강철생산의 성과여부가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각오를 안고 원료장입비률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가스발생로직장에서는 주체화된 생산공정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조강직장에 질좋은 가스를 중단없이 생산보장하여 중량레루생산성과가 끊임없이 확대되게 하였다. 용수관리직장과 내화물생산단위들, 산소분리기2직장, 공무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철강재생산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가열로와 용광로운영에 필요한 산소와 내화물생산을 늘이는 한편 보수전투때마다 작업기일을 단축하여 주체철과 중량레루생산량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금속공업성과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많은 파철을 모아 보내주었다.

지금 황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적대세력의 머리우에 주체의 쇠물폭포를 련이어 쏟아부을 멸적의 각오를 안고 철강재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홍 성 준

만리마의 기상 떨치며 영웅신화 창조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규모의 단천발전소건설착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네달 남짓한 기간이 흘렀다.

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9월 중순현재 1호발전소건설은 토사굴착 20%, 암석굴착 32%로 수행되였다. 그중 발전기실토사굴착은 92%계선을 넘어섰다. 압력철판로정, 배사갱, 여수로, 발전기실정면옹벽 등의 굴착공사들이 기본적으로 수행되고 조압수조수직갱공사는 이미 피복공사에 들어갔으며 발전기실하부수실공사도 40%이상 진행되였다.

단천5호발전소 신흥언제공사가 힘있게 다그쳐져 토사굴착은 75% 수행되고 수천m³의 암석굴착공사가 추진되였으며 5 000m³의 언제콩크리트치기가 진행되였다.

1단계건설의 주타격대상인 수십km의 기본물길굴공사를 위한 작업갱굴진이 적극 추진되는 속에 연 7 500여m의 굴진실적이 이룩되고 조선인민군 신윤철소속부대가 맡은 58—3갱에서는 이미 수백m의 작업갱굴진이 끝나고 150여m의 기본물길굴도갱공사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단천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단천발전소건설은 공사량이 방대하므로 발전소건설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야 합니다.》

단천1호, 5호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조선인민군 신윤철소속부대 장병들이 1호발전소 발전기실과 조압수조, 압력철판로, 여수로, 방수로 등의 공사장을 타고앉은 첫날부터 전격전, 섬멸전을 들이대고있다.

굴착공사를 맡은 구분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설비가동률을 부쩍 높이면서 짧은 기간에 9만 수천m³의 토사굴착과 수만m³의 암석굴착을 해제끼고 하부수실공사를 40%나 추진함으로써 발전기실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인민군 하태룡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5호발전소 신흥언제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고있다.

좌안과 우안에서 기초굴착공사가 동시에 벌어지고 혼합장, 선별장건설을 위한 부지확장공사가 전개되는 속에 3 000여m³의 통나무방틀공사와 가설다리건설이 짧은 기간에 수행되여 언제타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부대에서는 4개월 남짓한 기간에 총작업량의 75%에 달하는 2만 수천m³의 토사굴착을 진행하고 수천m³의 암석굴착과 함께 5 000m³의 언제타입실적을 올리였다.

단천6호발전소건설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언제건설을 맡은 속도전청년돌격대 제6려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굴착기의 가동률을 부쩍 높이면서 최근 보름동안에 1만 5 000m³의 언제기초굴착과제를 수행하였다. 발전기실건설을 맡은 청천강—평남관개물길건설 남포시려단의 돌격대원들도 지난 8월 중순 첫 발파를 진행한데 이어 사갱굴진을 위한 경임구형성전투를 완강히 벌리고있다.

물길굴건설전투장마다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조선인민군 신윤철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공사초기부터 림체전을 들이대여 9월 중순현재 연 1 300여m의 작업갱굴진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58—3갱의 군인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백m의 작업갱굴진을 해제끼고 150여m의 기본물길굴도갱굴진을 진행함으로써 물길굴건설에 참가한 전체 전투원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조선인민군 백일남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9개의 작업갱마다에서 이동식압축기에 의한 사갱굴진전투를 치렬하게 벌려 성과를 나날이 확대하고있다. 이 과정에 새형의 고속도굴진기, 권양기, 수중뽐프 등이 확보설치되고 앞선 굴진방법들이 도입되여 연 650여m의 작업갱굴진실적을 기록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한룡호소속부대, 인민보안성려단, 조선인민군 홍순철소속부대에서도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각각 수백m의 작업갱굴진실적을 올리였다.

수십개 시공단위 돌격대원들도 당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한마음안고 작업갱굴진에서 집단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현지보도반

거세차게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

경성애자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성애자공장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졌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감한 돌격전을 벌려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한 애자생산능력확장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원료, 성형, 건조, 소성공정에 이르는 능력이 큰 애자생산계통이 확립된 결과 그 어떤 종류의 애자도 마음먹은대로 다량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성애자공장의 애자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밀고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한 굴식소성로를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일떠세웠으며 CNC화된 대형애자성형기 설치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과적으로 해내였다.

애자생산능력확장공사는 시작부터 마감까지 과감한 공격전의 련속이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갔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에 조아박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굴식2호소성로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그 기세로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여 주기식소성로들을 일떠세워 그 어떤 형태의 애자들도 다량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여러기의 건조로들을 보수정비하여 건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능력이 큰 여러대의 볼분쇄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제작하였으며 중형애자성형기를 CNC화하여 많은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고 성형실수률을 높이였다.

공장기술집단은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바쳐 굴식소성로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받아들이고 설비들의 CNC화,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한 애자생산계통이 확립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귀중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였다.

특파기자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서두수발전소에서 년간 전력생산계획 초과완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힘찬 돌격전을 벌려 지난 14일현재 년간 전력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경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당조직에서는 전력증산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발전소일군들은 언제의 수위와 류입량에 기초하여 전력생산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발전소호상간 출력분배를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전력증산의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전력공업성의 기술집단이 발전소의 기술개건을 적극 도와주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고무제품생산기지를 훌륭하게 꾸려놓고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많은 고무제품과 자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발전기들의 대, 중, 소보수기일을 훨씬 앞당기고 발전기운영호기대수를 늘이였다.

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였다. 이들은 발전설비들에 대한 순회와 감시, 조작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발전기들의 중, 소보수를 계획적으로 하여 전력생산량을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이였다.

한학천동무를 비롯한 3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형의 수차들을 발전기들에 설치하고 기계식조속기를 수자식으로 교체하여 발전효률을 훨씬 높이였다.

1호발전소를 비롯한 전력생산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발전기운영호기대수를 늘여 전력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력구조물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물조절을 과학적으로 잘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여수로를 비롯한 구조물보수공사를 질적으로 하여 년간 전력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파기자 리은남